

불심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중생끼리 의지하면 성불 못한다

법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불보살의 화현이어서 곳곳에 불법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만 중생의 눈이 어두워 밝은 자성의 빛을 볼 수 없고, 중생의 귀가 어두워 정량한 법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우주법계가 다 법석인데 굳이 설법자를 마련하는 것은, 선지식의 법력을 통해 자성의 빛과 법의 소리를 흡수하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도량도 절대공간이 아니다. 법을 설하는 선지식의 자비와 법을 구하는 중생의 염원이 있는 곳이 도량이다. 일체제불의 원력이 한 찰나에 응결해 한 도량을 세운다. 부처님께서도 제석천의 요청에 풀 한 포기 세우고 "이로써 도량 하나를 세웠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어느 법석이든 설법사(設法師)가 있고 청중이 있어 청정한 깨침의 인연을 맺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배운 공덕도 무량하다. 법을 설하는 법사와 듣는 대중 그리고 법자를 마련한 시주의 원력이 결합해 무시무종의 공덕이 된다.

비가 내리다가 홀연히 개인 아침, 가을빛 찬란한 산색(山色)이 극락세계를 그려보게 하는 11월 8일, 이날은 울산 연화사 법당에서 개원3주년 기념법회 가 열리는 날이었다. 덕륜 스님이 도심 포교의 원력을 바탕으로 메고 찾아와 아담한 법당을 마련하고 호계불교대학을 꾸려온 지 3년, 이날 법회는 포교 원력을 세운 덕륜 스님과 연화사 호계불교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며 불자의 길을 닦아 온 불자 모두에게 감사스러운 자리였다. 비뻑하지 않은 여건 속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스님과 불자들이 '이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처님과 세상을 향해 회향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법회에 앞서 관세음보살님 점안식도 봉행돼 감격과 환희심은 더욱 컸다.

"이렇게 훌륭한 원력으로 지난 3년 동안 법회와 불교대학을 잘 이끌어 오시고 오늘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점안까지 했으니, 이로써 더 이상 큰 법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사의 법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다 더 친절하게 도량과 법석의 거룩함을 찬탄할 수 있을까? 불심 도문(佛心 道文·74) 대종사(大宗師)는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연화사 주지 덕륜 스님의 포교원력과 호계불교대학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자들의 원력이 풀이 아니어서 오늘 이렇게 뜻 깊은 법회를 열게 되었으니, 지금보다 더 큰 원력으로 공부와 전법 수행에 매진해 한 불자가 여섯 사람을 포교하고 25명에게 법을 전하고 33명에게 깨침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문했다.

대중사에서 법석에 오르시어 주강자를 곧바로 세우고 잠시 침묵을 하시니 법석이 숙연해졌다. 그 고요를 깨치며 대중사는 그윽한 계승을 읊고 힐한 사자후를 토해냈다.

약수승정념(若修淨正念)
명료경정각(明了見正覺)
무상무분별(無相無分別)
시명법왕자(是名法王子)

만약 바른 생각으로 뒤야 익혀/ 밝게 올바른 깨달음을 요달해 보면/ 모양도 없고 분별도 없어서/ 이 이름을 범왕자라 하리다.

오늘 이 법회에 초청돼 온 이 법사는 행림(行林)보살의 찬불계를 읊는 것으로 설법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법석에서는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계·정·혜' 삼학(三學)을 근수해 '문·사·수' 삼혜(三慧)인 무량해를 이루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혜란 무엇이나. 우선 문해(聞慧)이니 부처님과 제보살과 선지식의 설법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법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혜(思慧)입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고 생각한 바 대로 닦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니 바로, 수혜(修慧)라 합니다. 이렇게 잘 듣고 생각하고 닦으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무량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세음 보살님 점안식을 봉행 했으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모두 무량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에게 어떻게 나누어 가피를 내리시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6도응화신'으로 나무어 중생의 고통을 살피시니 그 거룩한 원력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등의 4악취와 인간 4주, 육계 6천과 색계 7천, 무색계 4천을 합한 25류 중생을 다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또 32가지의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보살과 주시는 관세음보살님(32응신)과 33가지의 온갖 모습으로 변화해 중생을 구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33화신)께도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대중사는 이들 관세음보살님의 명

보살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대상을 관세음보살로 보고 지극히 귀의하면 귀의하는 자기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니, 인응신(人應身) 관세음보살인 것입니다. 32응신과 33화신이란 바로 일체의 모든 존재의 귀함을 아는 것이고 일체의 존재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념법회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과 가피의 원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으니 앞으로 이 도량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생각하는 것도 수행이고 닦는 것도 수행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법당으로 안내 공부와 인연 맺게 하는 것도 들은 법을 생각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불법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을 법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수행이란 말입니다. 수행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 가운데 전법도 포함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하고 어떤 행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 계시 적에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이며 기특한 생각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이렇게 보혜보살이 200가지로 질문을 올리니까 보현보살이 그 200가지의 질문에 각각 10가지로 답해 무려 2000가지의 답을 말합니다. 이를 '보혜병사(普慈瓶辭)二百問 普賢雲興二千答'이라 합니다. 보혜보살이 병의 물을 쏟아내듯 한꺼번에 200가지의 질문을 쏟아내니, 보현보살이 구름이 뭉개뭉개 일어나듯 한 질문에 열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이 무량한 지혜...전법도 수행 자리이타의 바라밀 실천 없이 보리심 얻지 못해 서원 크게 세우고 매순간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 돼

호를 일일이 선창하시고 불자들에게 큰소리로 따라 호명하도록 했다)

자, 여러분.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커다란 원력과 그 가피가 여러분에게 고르게 전해 졌으리라 믿습니다. 이 인연으로 무량 가피를 받으시어 연화사 호계 불교대학과 여러 불자들이 일일변장 하시고 세계 일류의 도량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응신이고 화신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응신이고 화신입니다. 동남 동서도 모두 관세음보살이고 천인과 용과 아차까지도 모두 관세음

가지 썩 2000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첫 질문인 열 가지의 의지처를 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아라(菩提心爲依)하는 것이니 무상정등정각(아늑다라삼마삼보리)의 마음이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의 실체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극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에 의지(善知識爲依)해야 합니다. 선지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를 3종선지식이라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살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호선지식이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행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겠습니까? 절 뿐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동행선지식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수선지식인데 매순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다 교수선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선근(善根爲依)입니다. 선근이란 바른 삶의 지혜이고 근원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온갖 죄악을 차단하는 뿌리입니다. 신(身)선근과 구(口)선근, 의(意)선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고 안으로는 선근을 잘 기르고 지키는 것이 수행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라밀로써 의지를 삼아라(波羅密爲依) 합니다. 인간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은 생사고해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사고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골라!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 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 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바닥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장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취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 남성용
• 아이젠 부착으로 미끄럼 방지
• 수많은 최첨단 테크닉을 거쳐 개발된 신기술 등산화
• 안전후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눈출발 소재의 밑창
• 가격 88,000원
• 여성용(색상 2인)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니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만스푼 정도로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일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전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석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



• 내용량 : 1박스(80cm×60cm) 2개월분
• 1병(1.5L)

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음 만큼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옷 안다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고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갖춰야 하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다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마, 난 익히!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서면 익히 되는 옷 건강법 실천
- ▶2006.8.20 KBS 상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실천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협찬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080-838-3366